

### 삼각산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 여가행렬 600년만에 재연

"나부개는 깃발과 일산이 한강을 덮고,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흔드니,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세종실록 권55 14년 2월 14일>

도심지 도로에 600여 년 전 조선 태조의 여가행렬이 재연됐다.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는 것처럼 왕의 행렬은 웅장하고 장엄했다. 오색의 깃발과 일산(日傘)이 도로를 덮었다. 북소리와 종소리는 소란한 도심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여가행렬의 길이만 200m, 조선시대 북장의 250여 명이 5km 거리를 지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서서 행렬을 지켜봤다.

1397년은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지 6년째, 그리고 무학 도사의 도움을 받아 한양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이전한 지 4년째 되던 해다. 신진 사대부의 힘을 얻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왕조를 세우며 고려왕실 사람들을 죽인 악업과 흉흉한 민심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나라를 세우는 데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신하들의 뜻을 반영해 성리학을 신봉하고 고려시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승유억불을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불심이 깊었던 태조는 수륙재만큼은 거행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태조, 진관사로 거둥하다

그러하여 태조는 1397년 1월 조종선령(祖宗仙靈)과 순국충열(殉國忠烈), 희생당한 고려 왕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일산과 부채를 든 신하들, 그리고 취타대와 문무백관 및 호위부대를 대동해 북한산에 있는 진관사를 향해 출궁하기에 이른다.

10월 23, 24일 삼각산 진관사(주지 계회)가 개산 천년을 맞아 진관사 국행수륙대제(國行水陸大齋) 및 삼각산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했다. 612년 전 조선 태조 임금의 수륙재를 위한 여가행렬을 재연했다.

첫째 날, 여가행렬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성당을 출발해 연신내사거리와 은평경찰서를 거쳐 진관사로 향했다. 진관사를 국행수륙도량으로 지정한 태조가 여가를 이끌고 직접 진관사로 거둥했던 장엄한 행렬을 한국문화재보존재단이 진행해 거리 시민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여가 행렬이 진관사에 도착하자, 일주문 앞에 나온 주지 계회 스님이 태조를 맞았다.

"전하께서 친히 진관사를 거둥하여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수륙재를 올린다가에 과인이 거둥하셨습니다. 예조판서는 여서 주지 스님께 향을 전하시오."

"예, 전하"

예조판서가 향로를 맨 가마꾼을 인도하고 가마꾼은 주지 스님이 미리 준비한 자리위에 향로를 옮겨놓는다.

"전하 승은이 망극하옵습니다." 주지 스님은 국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틀 동안 열린 국행수륙대제에는 신도들과 취재진,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첫째 날에는 역대조

사 다례재와 조선태조 여가행렬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과 함께 국행수륙무차평등대제가 열렸다.

#### 진관사 개산 천년 맞아 수륙재 봉행

여가행렬을 마친 뒤 진관사 스님들은 고려 현종, 조선 태조, 진관대선사의 혼백을 모시고 시련(侍禱) 장소로 향했다. 시련은 불보살과 일체의 성현 및 조선 태조의 조상을 법요식에 모셔오는 의식이다. 시련이 끝난 뒤 법회를 시작하기 전 영가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간단한 밥식을 베푸는 대령(侍靈)이 이어졌으며 영혼이 불단에 나가기 전 몸을 깨끗이 하는 관욕식도 진행됐다.

계회 스님은 "진관사 개산 천년을 맞아 수륙재를 봉행했다. 불교 무형문화유산은 화려하고 장엄한 문화예술이 많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불교무형문화유산을 많이 발굴해 세계에 알리는 노력해야 한다. 진관사 국행수륙대제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했다.

수륙재(水陸齋)는 물이나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 등의 혼령들에게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평등하게 베풀어 구제하고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불교의식이다. 수륙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행된 것은 고려 때부터로 고려 태조 23년(940년) 12월 수륙재가 거행된 것을 시작으로 광종 21년(970년) 감양사(葛陽寺)에 최초로 수륙도량이 개설됐으며, 11세기 중국으로

부터 수륙재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의문집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후원으로 크게 발전했다.

글=이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사진=박재환 기자



국행수륙대제에 참여하기 위한 태조의 여가행렬이 도심지를 지나고 있다.



계회 스님을 따라 진관사 스님들이 향로를 들고 시련장소로 향하고 있다.

#### 수륙재 본찰 삼각산 진관사

태조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고려 왕족과 친인척,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간 귀족 및 장군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전국에서 수륙재를 거행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수륙재를 보다 성대하게 거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양 근처에 수륙사(水陸社) 건립을 위해 신하들에게 마땅한 곳을 물색케 했다.

권근의 <진관사 수륙사 조성기>에 의하면, 삼각산에서 도봉산까지 둘러보고 이들이 북망하기를 "주위 산세가 웅장하고 좌우 용호가 길게 외호하며 또한 수석이 청결하고 풍광이 맑고 아름다운 곳으로서 고려 현종께서 그 재생의 은사이신 진관대사를 위해 도량을 건설했다 하옵는 삼각산 서쪽 구릉에 자리 잡은 진관사가 제일 영지인가 아뢰옵니다"고 했다.

이에 태조는 즉시 진관사로 가서 옛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이 59칸이나 되는 수륙사를 건립했으며, 직접 수륙사 상중하의 삼단의 위치를 배정했다. 제일 상단에는 자신의 조상을 모셨고, 중단은 고려왕조의 순국자를 위한 단으로, 하단은 그 밖의 수륙고혼을 위한 단으로 했다.

그리고 제1회의 수륙재 겸 낙성식을 베풀었다. 이날 조정의 문무백관은 물론 왕실의 왕족들도 모두 참석하게 했고 권근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

이렇듯 수륙재는 국가적 행사로 확대됐으며 진관사는 국가적 규모의 수륙재가 개설된 공식적인 사찰로 지정됐다. 진관사에서는 수륙재와 왕실의 각종 재를 봉행했다. 지금도 수륙도량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지 계회 스님이 위패를 모시고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뒤에서는 비구니 스님이 비라춤을 시연하고 있다.



일주문 앞에 도착한 태조 임금을 주지 계회 스님이 맞이하고 있다.

## 깃발은 한강을 덮고 북소리 하늘을 뒤흔드네



문무백관과 호위부대를 대동해 삼각산 진관사를 향하고 있는 태조 임금.

“수륙재는 혼령들에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평등하게 베풀어 구제하고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불교의식”

梵鐘名家 聖鐘社

###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채(改彩)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청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채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채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아름다운 개채 범종

금고 (금박+은박)

범종 (못칠+개금)

해인사종 (금박+은박)

대표: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대한민국 명장)

聖鐘社 SUNG JONG SA

● 전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사면 합곡리 406-28 Tel:043-536-2581